

在日大韓基督敎會
宣敎70年을 향한 標語

1. 敎會에 革新을!
2. 社會에 變革을!
3. 世界에 所望을!



THE GOSPEL NEWS

12月15日(土) <1973年> 第293号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新宿区戸塚1-551(〒160)

電話 03(202)5398番

發行人 崔京植・編集人 楊炯春

毎月1回 15日發行 購読料 1部20円

昭和38年9月20日第3種郵便物認可

印刷所・青丘文化社

축하

韓民族의 歴史的運命 속에서

李仁夏總會長の 크리스마스메시지

성탄

「높은 산이 낮아진다」(누가3)는 말씀은 남북의 兩政權의 自己絶對化나 偶像化가 그대로 갈수 없다는 소식이다. 하나님은 기운이 불면 모든 높은자들이 그 영광을 부러도 결국은 불과같이 시들어지고 마나 하나님은 말씀은 영원히 선다(이사야40). 歴史 가운데서 이 말씀이 증거되었고 현대에도 이 말씀이 일어나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주님은 이 말씀에 처하여 자신을 낮추고 만유에서 가장 낮은 현실에서 구주의 성탄이 갈망되고 크게 祝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祖國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나, 韓民族의 歴史的인 運命 속에서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韓國敎會協議會가 발표한 人權宣言에 보이다시피 昨年の 十月維新 以來, 自由를 박탈당한 우리 민족의 억눌린 狀態가 성탄소식의 말씀과 關係가 될 것이다. 민족의 統一을 갈망하는 南北百姓들의 호소에 「平和가 땅 위에」(누가2)라는 말씀이 들려져야 할 것이다.

「높은 산이 낮아진다」(누가3)는 말씀은 본의 人權의 아무런 保障 없이 살고 있다. 永住權도 後 保障이 되지 못함으로 最近 強制退去처분 받은 靑年의 悲劇을 통하여 밝혀졌다. 성탄 소식은 이런 現況 속에서 듣겨진다.

聖誕의 뉴스는 때의 暴君 暴虐의 地位를 흔들었기에 그는 無力한 災難아기들을 學살하는 罪惡은 환경을 자아내기도 했다. 오늘날 資本主義社會의 장사군의 消費宣傳이나 大衆들의 향락적인 誇아티나 그리스도의 극히 個人化되고 日常化된 祝賀는 성탄의 眞實한 事件에 關係될 點도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幻想에서 회개하고 歴史를 구속하며 變革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이다.

福音記者들은 聖誕의 事件인 예수님의 오심을 報道할 때, 洗禮요한을 그先驅者로 등장시킨다. 그가 荒野에서 외친 소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이사야40, 누가3)는 것이었다. 이 말씀은 紀元前 7世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奴隸生活에서 解放된다는 消息과 關係가 있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聖경에서 언제나 民族歷史의 여러局面에 깊이 介入된 것으로 전해진다. 洗禮요한의 子言에 呼應하시피 예수는 같은 이사야서를 들어 그의 子言의 役事가 가난하고 억눌린 백성의 解放과 自由에 있다고 宣言했다(누가4). 가난의 극한에서 태어난 예수는 어려움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啓示였다.

聖誕獻金の 1/3要望

五月會議위해、財政局서 呼訴

지난 11월 26일 大阪 KC C 회관에서 열린 財政局에서 우리 총회와 내년 5월에 京都 아카메미하루에서 KC C에서 主權한 五月會議의 基金을 募金하는 方法으로 우선 우리교회 전체가 이會議의 重要性을 인식하고 會를 贊助하는 뜻으로 이 聖誕獻金の 1/3을 여기에 募기로 可決하였다.

크리스마스선물

한일대조新約

오랫동안 원해온 韓日對照新約聖書가 드디어 이번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聖書協會에서 發刊되어 話題를 일으키고 있다.

B 6版 一萬部限定版으로 나왔기에 注文이 殺到하고 있는 形勢이라 한다. 본회의에서는 KCC에서 寄附하기로 되어 있어 원대자는 기독교서점 또는 KCC에 문의하면 된다(값 300원).

申京煥氏 승환보류

그간 社會的問題가 되었던 申京煥君의 強制送還은 崔昌華社會局長들의 努力으로 駐日韓國大使館에 陳情書를 내는 한편 法廷斗争에 끌고감으로써 姜泰善은 保留되었다. 申京煥問題에 대한 詳細한 내용은 11월 15일자 朝刊都內重要新聞 및 크리스마스 新聞 11월 17일자에 크게 報道된 바 있다.

참自由와 人間回復

인권주일을 맞아 祈願

12월 10일 人權宣言記念日을 맞이하여 한국과 日本大韓 기독교교의 산하교회에서 참된 自由와 人權回復를 기원하는 人權主日 祈願을 드렸다. 먼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對照新約聖書가 드디어 이번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聖書協會에서 發刊되어 話題를 일으키고 있다. B 6版 一萬部限定版으로 나왔기에 注文이 殺到하고 있는 形勢이라 한다. 본회의에서는 KCC에서 寄附하기로 되어 있어 원대자는 기독교서점 또는 KCC에 문의하면 된다(값 300원).

주의 품에 잠드소서

安榮俊牧師·金益煥長老

해방직후 熊本敎會를 개척전도하고 또한 堺敎會에서 視務하신바 있고, 現在 春木(泉大津)敎會에서 牧會하시던 安榮俊牧師가 당초종교간장염으로 10월 25일 아침 8시 15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세상을 떠났다. 持病인 당노증으로 오래 고생하면서 熱意로 對敎會에 대한 꾸준한 熱意로 위지않고 일하던 중 지난 10월 19일 갑자기 病勢가 惡化되어 入院하였었다. 夫人金化淑씨는 끝내 渡日하지 않은 채 單身으로 海방후 이곳에서 敎會를 섬겨온 것이다. 遺族으로는 夫人과 一男二女가 서울에 있고 二男有垣氏夫婦과 孫女美惠가 日本에 살고 있다.

金長老, 고향서

경도교회 金益煥牧師의 장로는 故鄉인 慶南固城을 訪問中 지난 11월 17일 老患으로 別世했다. 金長老는 京都敎會뿐만 아니라 新義敎會外 關西地方會, 그리고 총회를 위해서 奉仕를 다해온 바 있다(향년 84세).

* 새로운 한국교회를 음미케하는... 著者 吳允台목사의 필생의 역작 드디어 出刊!

韓國基督教史

韓國景敎史編

- ① 韓國敎會史의 새로운 집필양식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年代와 事件의 나열적인 敎會史가 아니라 그속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와 힘을 표현한 살아있는 敎會史입니다.
- ② 敎會史속에 특히 나타난 한국불교와의 關係등의 흥미진진한 글과 탁월한 저자의 투사력을 바라볼수 있을 것입니다.
- ③ 韓國敎會史를 研究하는 學徒는 勿論 牧會者와 神學生들에게 이敎會史야말로 문제성을 던져주고 있는 글이 될것입니다.
- ④ 一般信徒들에게도 이 敎會史야말로 必히 구독해야할 冊이며 어떤 중압감을 갖고 읽을수 있는 冊은 결코 안될것입니다.
- ⑤ 아름다운 原色畫報와 음세트로 인쇄된 本冊子는 韓國基督教史를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호화양장原色畫報/신국판 340 페이지/특수케이스入 보급特價 2,000원

서울시중로구연지동 136-46 惠宣文化社 (기독교회관 305호)

人權保障은 平和의 基礎

WCC 인권문제제협의 회차자료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본회의와 국제문제위원회의 주관 아래 신앙의 자유를 기본적권리로 하는 인권문제제협의(준비위원회) 김윤식(을) 11월 23·24일 양일간 본회의관에서 개최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가 처한 상황에 있어서 인권의 신학적 개념, 정립과 생활전반에 걸친 이해와 해석, 그리고 주어진 상황 아래서 인권의 적용 및 침해 내지는 유린의 결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같은 「WCC에서 제정된 인권문제제협의 회차자료」(1973. 11. 24 크리스찬신문에서 전재)

국가나 단체 그리고 개개인으로서는 이 문제에 관한 합의로써 이 문제에 대한 인권의 이해와 해석, 그리고 주어진 상황 아래서 인권의 적용 및 침해 내지는 유린의 결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같은 「WCC에서 제정된 인권문제제협의 회차자료」(1973. 11. 24 크리스찬신문에서 전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본회의와 국제문제위원회의 주관 아래 신앙의 자유를 기본적권리로 하는 인권문제제협의(준비위원회) 김윤식(을) 11월 23·24일 양일간 본회의관에서 개최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가 처한 상황에 있어서 인권의 신학적 개념, 정립과 생활전반에 걸친 이해와 해석, 그리고 주어진 상황 아래서 인권의 적용 및 침해 내지는 유린의 결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같은 「WCC에서 제정된 인권문제제협의 회차자료」(1973. 11. 24 크리스찬신문에서 전재)

적·경제적·정치적 현실과 어떻게 관련해서 결정하느냐에 의존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종교적 자유를 기본적권리로 하는 인권문제제협의(준비위원회) 김윤식(을) 11월 23·24일 양일간 본회의관에서 개최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가 처한 상황에 있어서 인권의 신학적 개념, 정립과 생활전반에 걸친 이해와 해석, 그리고 주어진 상황 아래서 인권의 적용 및 침해 내지는 유린의 결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같은 「WCC에서 제정된 인권문제제협의 회차자료」(1973. 11. 24 크리스찬신문에서 전재)

인권은 하나님 주신 지상의 가치이다. 인간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창 1:27)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며 인권의 침해가 없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그의 역사하심을 따라 교회는 인권의 확립을 지상의 과제로 믿고(누 4:18)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 개인의 생존의 근거이며 사회발전의 기초인 인권확립에 있음을 확신한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인권의 확보 및 수호를 위한 효과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1973년 11월 23·24일 양일간 인권문제제협의 회차자료(을) 11월 23·24일 양일간 본회의관에서 개최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가 처한 상황에 있어서 인권의 신학적 개념, 정립과 생활전반에 걸친 이해와 해석, 그리고 주어진 상황 아래서 인권의 적용 및 침해 내지는 유린의 결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같은 「WCC에서 제정된 인권문제제협의 회차자료」(1973. 11. 24 크리스찬신문에서 전재)

인권은 하나님 주신 지상의 가치이다. 인간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창 1:27)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며 인권의 침해가 없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그의 역사하심을 따라 교회는 인권의 확립을 지상의 과제로 믿고(누 4:18)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 개인의 생존의 근거이며 사회발전의 기초인 인권확립에 있음을 확신한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인권의 확보 및 수호를 위한 효과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1973년 11월 23·24일 양일간 인권문제제협의 회차자료(을) 11월 23·24일 양일간 본회의관에서 개최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가 처한 상황에 있어서 인권의 신학적 개념, 정립과 생활전반에 걸친 이해와 해석, 그리고 주어진 상황 아래서 인권의 적용 및 침해 내지는 유린의 결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같은 「WCC에서 제정된 인권문제제협의 회차자료」(1973. 11. 24 크리스찬신문에서 전재)

인권은 하나님 주신 지상의 가치이다. 인간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창 1:27)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며 인권의 침해가 없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그의 역사하심을 따라 교회는 인권의 확립을 지상의 과제로 믿고(누 4:18)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 개인의 생존의 근거이며 사회발전의 기초인 인권확립에 있음을 확신한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인권의 확보 및 수호를 위한 효과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1973년 11월 23·24일 양일간 인권문제제협의 회차자료(을) 11월 23·24일 양일간 본회의관에서 개최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가 처한 상황에 있어서 인권의 신학적 개념, 정립과 생활전반에 걸친 이해와 해석, 그리고 주어진 상황 아래서 인권의 적용 및 침해 내지는 유린의 결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같은 「WCC에서 제정된 인권문제제협의 회차자료」(1973. 11. 24 크리스찬신문에서 전재)

인권은 하나님 주신 지상의 가치이다. 인간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창 1:27)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며 인권의 침해가 없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그의 역사하심을 따라 교회는 인권의 확립을 지상의 과제로 믿고(누 4:18)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 개인의 생존의 근거이며 사회발전의 기초인 인권확립에 있음을 확신한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인권의 확보 및 수호를 위한 효과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1973년 11월 23·24일 양일간 인권문제제협의 회차자료(을) 11월 23·24일 양일간 본회의관에서 개최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가 처한 상황에 있어서 인권의 신학적 개념, 정립과 생활전반에 걸친 이해와 해석, 그리고 주어진 상황 아래서 인권의 적용 및 침해 내지는 유린의 결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같은 「WCC에서 제정된 인권문제제협의 회차자료」(1973. 11. 24 크리스찬신문에서 전재)

인권은 하나님 주신 지상의 가치이다. 인간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창 1:27)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며 인권의 침해가 없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그의 역사하심을 따라 교회는 인권의 확립을 지상의 과제로 믿고(누 4:18)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 개인의 생존의 근거이며 사회발전의 기초인 인권확립에 있음을 확신한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인권의 확보 및 수호를 위한 효과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1973년 11월 23·24일 양일간 인권문제제협의 회차자료(을) 11월 23·24일 양일간 본회의관에서 개최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가 처한 상황에 있어서 인권의 신학적 개념, 정립과 생활전반에 걸친 이해와 해석, 그리고 주어진 상황 아래서 인권의 적용 및 침해 내지는 유린의 결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같은 「WCC에서 제정된 인권문제제협의 회차자료」(1973. 11. 24 크리스찬신문에서 전재)

인권은 하나님 주신 지상의 가치이다. 인간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창 1:27)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며 인권의 침해가 없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그의 역사하심을 따라 교회는 인권의 확립을 지상의 과제로 믿고(누 4:18)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 개인의 생존의 근거이며 사회발전의 기초인 인권확립에 있음을 확신한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인권의 확보 및 수호를 위한 효과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1973년 11월 23·24일 양일간 인권문제제협의 회차자료(을) 11월 23·24일 양일간 본회의관에서 개최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가 처한 상황에 있어서 인권의 신학적 개념, 정립과 생활전반에 걸친 이해와 해석, 그리고 주어진 상황 아래서 인권의 적용 및 침해 내지는 유린의 결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같은 「WCC에서 제정된 인권문제제협의 회차자료」(1973. 11. 24 크리스찬신문에서 전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人權宣言(全文)

인권은 하나님 주신 지상의 가치이다. 인간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창 1:27)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며 인권의 침해가 없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그의 역사하심을 따라 교회는 인권의 확립을 지상의 과제로 믿고(누 4:18)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 개인의 생존의 근거이며 사회발전의 기초인 인권확립에 있음을 확신한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인권의 확보 및 수호를 위한 효과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1973년 11월 23·24일 양일간 인권문제제협의 회차자료(을) 11월 23·24일 양일간 본회의관에서 개최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가 처한 상황에 있어서 인권의 신학적 개념, 정립과 생활전반에 걸친 이해와 해석, 그리고 주어진 상황 아래서 인권의 적용 및 침해 내지는 유린의 결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같은 「WCC에서 제정된 인권문제제협의 회차자료」(1973. 11. 24 크리스찬신문에서 전재)

韓國クリスト者の爲に

現在韓國は、經濟援助の名目で多額の借款と公害企業を日本から導入していまふ。この為多額の農民達はちよと日帝植民地時代の「土地調査事業」の時のよう田畑を日本の企業家に奪われ、そして浮浪化し、又工場労働者達は過酷な条件のもとで、又非常に安い賃金で働かされてゐる。しかし權力と富を欲する。また、私たちはいまひとつ韓國におけるクリスト者の具體的な信仰告白をスラム街で宣教師の朴炯圭牧師を

金 商 元

ところが、このような不正と腐敗に對し、ついに韓國のソウル大学生やクリスト者達は立ち上つたのです。彼等の行動は、決して単なる不平分子の暴挙などといふものではなく、恐怖と不義に満ちた現代社會の不条理の中での残された最後の手段としての信仰告白なのです。又、私たちはいまひとつ韓國におけるクリスト者の具體的な信仰告白をスラム街で宣教師の朴炯圭牧師を

金 商 元

ところが、このような不正と腐敗に對し、ついに韓國のソウル大学生やクリスト者達は立ち上つたのです。彼等の行動は、決して単なる不平分子の暴挙などといふものではなく、恐怖と不義に満ちた現代社會の不条理の中での残された最後の手段としての信仰告白なのです。又、私たちはいまひとつ韓國におけるクリスト者の具體的な信仰告白をスラム街で宣教師の朴炯圭牧師を

金 商 元

ところが、このような不正と腐敗に對し、ついに韓國のソウル大学生やクリスト者達は立ち上つたのです。彼等の行動は、決して単なる不平分子の暴挙などといふものではなく、恐怖と不義に満ちた現代社會の不条理の中での残された最後の手段としての信仰告白なのです。又、私たちはいまひとつ韓國におけるクリスト者の具體的な信仰告白をスラム街で宣教師の朴炯圭牧師を

不動産業務全般

土地・建物・山林売買・仲介・管理及び投資の御相談、不動産の事ならお気軽に御一報下さい。特に信者の方には遠近にかかわらず無料相談に応じます。

太栄企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金光洙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八千代通3丁目11番地
(名古屋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 太栄ビル)
電話 (052) 682-1177(代)

自宅 名古屋市千種区猪高町猪子石原字太田1406の3
電話 (052) 771-5952

母国서講演

崔京植 총무는 한국기독교장노회의 초청으로 동단 전북노회 선교대회에서 강연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3일 조국을 방문하고 동회에 참가하고 서울에서 여러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였다. 12월 12일 귀국하였다. 이번의 방문은 "基長의 초청으로된 私的인 것이 있으나 총회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보게 되었다."

良き聖誕節を

ートや商店街、飲食店等が我先にときれいに店先を飾り如何にもクリスマスを祝うかのように客の目を惹くませ買気を誘うのです。又人々はこうした宣伝に浮かれ所謂、世俗的なレジャー

クリスマス祝賀札押をする時と、違う人と違う場所ので何回となく祝賀パーティをする気分とは大分違うからである。

以上のように回数が多いパーティはナンセンスで慎

いでしょう。
どうぞ皆さん今年こそは
クリスマスの真の目的を探
る良い聖誕節でありますよ
う、神様にお祈り申し上げ
ます。
(京都教会長老)

し得ないのか。救いは架空の概念なのか、それとも現代の日常の忙がしさに圧倒されている個々と、組織の弱体を晒しているのか、新しい価値を模索している段階なのか、それとも私個人の信仰の浅さや、体系的に聖書を精読していないのでこれらの単純な疑問が生ずるのだろうか等々。

疑がう事の意味を問いつ

つ、又私達同胞、教会青年の連帯がより良く深きものへと志向する事を実感として、主イエスの聖誕を共に迎えたい。(北部教会)

(胡弓から転載)

로의 유대를 약속하는
義길은 모임이었다. 川崎
教會가 竣工의 날을 가
까이 바라보는, 새 禮拜
堂과 保育園의 近代의
면서 使徒의인 모습을

은 霧匿氣 속에서 感
節을 지키려는 敎人の姿
勢와 保育事業에 參加하
는 어머니들의 會合을通
하여 宣敎과 社會參加를
一体로 이룩해나가는 時

代的教會의 典型을 보
주는 듯한 기쁨을 한없이
느끼면서 關東地方宣敎活
動을 끝마치었다。

(사진 전幕사)

伝道局幹事田永福 목사



講師로	關東地方會伝道部
가 主 動이	되어 十一月
十五日부터	十二月二日까지
지 關東地方各教会에서	날
訪問伝道、저녁	伝道集會會
를 開催하였는데、	特히十
一月十八日	調布、二十五
日 西新井教会에서	感謝
節礼札를	지켜 많은 宣

육 健全한 教會形成
의어진 모습을 보게되어
다. 品川 教會集會도
信仰의 會合으로 前進하
教會形成과 宣敎姿勢의 새
로움을 다짐하였다. 館山
市에서 看護員見習生三十
名을 中心으로 모여있는
道所集會에는 本國에서

志村ハフテスト教会와 리西新井教会와의 親交 同礼拝와 上尾合同教会(ニ基)의 特別伝道礼拝는 彩한 푸러그램으로 韓民族의 存在의 尊嚴性과 韓解의 歴史를 벗어내려 는 뜨거움을 품긴 同信의 握手와 마음깊이

マルクスがめざすのは、私有財産の徹廃による階級闘争の終熄、全ての生産物の共有化であり、それ

「われわれは、マルクスが批判するところの『社会主義』の問題を、ことごとく取り出して問題化しようとは思わない。もちろん、彼

今日の韓国社会では、あらゆるものが「金」を中心に動いているというのが実であり、マルクスがい

韓 哲 河

民族

値を無視した。……
もなく高くそびえたつてい
るホールのように、突出し
た産業文明社会ではな
いだろうか？
マルクスが、この問題に
いてわれわれの急所をつ
ているのは事実である。

われわれは、マルクスが、今日の韓国社会では、批判するところの「社会不正義」の問題を、ことさらに取り出して問題化しようとは思っていない。もちろん、将」とおり、医師も弁護士も

楊炯春

[illegible]

기독교와 맑시즘의 대결에 있어서의 해답도 여기에 그 성패 여부가 달려있다.

여기선 주로 재일교포 중 사상적인 면에서 기독교와 입장을 달라하고 있는 형제들(반기독교적전인 조총련)과 나아가서 앞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독교와 맑시즘과의 대화를 위해 몇가지 원칙을 생각하고자 한다. 앞으로나오는 엄청난 과제 즉 북한 선교의 방침은 지금과 달리 대한기독교회와 본국에서 파송한 일본선교사들로 말미암아 이뤄지는 공산주의자(조총련)들용한 한 복음선교의 노력에서 많은 문제와 해답을 얻

자세는 언제나 겸허하고
섬기는자의 마음과정이
적하게 나타나야 하는
이다. 프랭크·월슨·프
이스의 말대로 「비록
산주의 신봉자가 우리
신앙을 비교학적·미신
또는 반사회적이라 불
도 우리는 그들을 무
론이라고 비난할 필요
없다. 공산진영 외에도
제적인 무신론은 얼마
지 있다. ∴ 우리들은
산주의자를 지목하여
떨어서는 안된다. 그들
게 대해서도 만일 그
이 원한다면 손을 잡
우리와 그들, 모든 인류
하나님을 믿도록 구해
한다. 그들의 반종교적

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
 앞에 우리의 몇몇하지 못
 했던 정치학과 결부되었
 던 불행한 역사를 인정
 해야 한다. 확실히 기독
 교의 복음은 그 역사적
 표현에 있어선 환경에
 항을 끼쳤고 또 영향은
 받고 있다. 우리는 기독
 회가 제국주의 기타 관
 거의 정치안속에 아무런
 저항의식을 느끼지 않
 채 휩쓸려 들어갔던 부
 행한 역사를 인정하고도
 시에 우리 교회가 회
 와 내부정화에의 해
 장하고 변화한 것을
 고 있다. 그러므로 우
 는 기독교 신앙을 그
 이 지금과지도 휩쓸려

노력을 다해야 한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에 사회적인 또는 국제적인 죄과를 고백하게 될 때 그들 공산주의자들일 게도 그와 똑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에 우리는 좀더 동양과 구에 팽창하는 공산주의를 그 기원에서부터 전, 이론, 구조, 종교성, 이상한 폭팔력을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이해한다는 것은 수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 「때의 징조」를 현명하게 분간하고 우리와 근본으로 입장을 달리한 그룹의 사상이나 감정을

을 도로 찾는 노력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작업은 우리 입장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의 재검토를 말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들보나 온 것이 무엇이냐」고 수게서 물으실때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하면서 실천에 부족 우리들, 우리는 비록 그들의 사상과 행동에 할 수 없는 저항을 느낀다 해도 그들을 향한 리의 적극적인 기독교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불리워야 할 것은 것이다.

巨大な連合体だけが残るうになり、この中で各個の自由な発展が全ての人の自由な発展の条件となるである。」

共産主義は、アジアの発達上国では、近代化のこの方法として用いられている。しかし、それはわれが以上において見えたように、もともと産の発達や物質的繁栄の社建設をめざすというよりむしろ現代社会、すなわ資本主義社会の中にあつ束縛されている人間の解特に無産大衆の解放をめして登場したものだといことがきよう。

マルクスが掲げたのは

この面がそれほど大きく問題にならないのは、欧米先進国では資本主義体制の維持しつつも、一般の勤大衆が決して不幸な境遇に置かれていないからであり、現在わが韓国がめざしているのも、こうした社会を実現することであつて、一般の人だけが良い生活ができて、社会を形成することではない。

「貧しければますます貧しくなり、富めばますます富む」という言葉、耳が痛くなるほど聞きまた書き続けるのは、まさに決てそうなのは、いけないうの考えが、ひとつの暗の了解としてだれの心中に

をもつて高く見られてい
仁術が、今や完全に金銭
係に還元されてしまった
であり、まさに商品化の
象を露骨にあらわしてい
のだからということができ
る。

教会でも、牧師を追い
うためには金銭封鎖とい
う手段（牧師に謝儀を出さ
ないこと）を弄しさえすれば
全てに片がつくのである
それは、そうした攻勢の
に膝を屈服させる以外な
琴職者たちの現実がある
らである。あらゆる人間
係が、金銭関係に還元さ
てしまふこうした現実を
われわれはどのようにし
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
るか？（以下次号「編集部説